

## ▶ 제3장

# 가정에서 살펴본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을 위한 부모역할

### 1 ● 영유아 권리에 기반한 부모의 양육유형



#### 가. 영유아 권리에 대한 부모 인식

##### 1) ‘그 밖의 다른 존재’와 ‘미성숙한 존재’로서의 영유아

De Castro(2004)는 가정에서부터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거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동은 ‘그 밖의 다른 존재’로 취급되어 왔고, 이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아동권리를 박탈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그 밖의 다른 존재’라는 것은 일치하지 않거나 융합되지 않는 어떤 것을 의미하며 결국 아동을 다수를 이루는 집단과 다르다’고 간주하였다.

이 경우 ‘다름’은 ‘차이’나 ‘보편적인 현상’, 그리고 ‘아동기의 특성’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성인들의 ‘일반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미숙함’의 개념과 일치하며 의사결정 능력과 책임감의 부재로 이해되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아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차별대우를 낳는 원천이다. 따라서 아동을 ‘그 밖의 다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교육기회의 제한, 권리의 박탈, 지위의 불평등, 법률적 불이익 등과 같이 아동의 삶을 제한한다(황옥경, 2013).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행동을 존중하지 않고 연령과 미성숙을 이유로 의사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2)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새로운 시각, '권리 주체자'로서의 영유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영유아도 '권리의 주체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생아와 유아가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적이지만 그들은 양육, 감독 지도의 소극적인 수용자가 아니며 부모와 양육자들로부터 생존,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한 증거로 신생아는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양육자를 인식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비언어적인 의사교환을 하고 유아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모 혹은 양육자와 다양한 애착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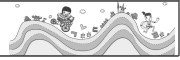
따라서 출생 후 유아의 발달과정은 영유아 권리 실현에 결정적이다. 부모 및 양육자들은 아동발달을 위해 제공해 주어야 할 자원과 지도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부권주의적 시각을 극복하고 영유아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이익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 차이를 중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영유아 권리에 기반한 부모의 양육유형

### 1) 가정 내 권리 기반 양육환경 조성

영유아기는 부모의 책임이 가장 광범위하게 작용되는 시기이다. 영유아기는 부모의 양육유형에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경험을 맘껏 누리거나 아동권리 침해의 위협에 가장 많은 시간 노출될 수 있다. 영유아권리에 기반한 부모 양육유형을 정립하기 위해서 부모는 다음의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유아 발달의 독특성과 개인차 인식
-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 인식
- 영유아기 권리를 가정 내 부모양육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
- 영유아도 성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라는 확신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분명한 이해
- 영유아 권리보호가 성인 즉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인식
- 영유아 최선의 이익의 중요성 인식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신의 양육방식이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는 아동권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아동권리 민감성을 발달시켜야 한다. 부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유형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거로 아동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보다 아동에게 위험한 상황은 많이 있고, 실제로 아동들만이 부딪치게 되는 위험도 있다. 이처럼 아동이 소유한 일부 권리는 성인들의 권리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다른 유형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 영유아 권리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

- 자신의 양육유형에 대한 점검
- 영유아 권리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영유아만이 갖고 있는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
- 영유아의 일부 권리는 성인들의 권리와 달라 다른 유형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는 자각
- 체벌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인식
- 정서학대나 방임은 광범위한 의미의 학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

위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최선의 이익원칙과 차별금지원칙을 전제하고 동시에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권리유형을 고려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권리에 기반한 가정 내 부모 양육환경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부모 양육 최소 기준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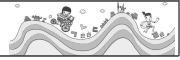
- 균형 잡히고 규칙적인 식사와 간식 제공
- 청결한 가정환경과 위생적인 양육
-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건강한 발달 도모
- 충분하고 적절한 수면시간 제공
- 영유아의 신체와 계절에 맞는 옷차림 제공
- 어떤 형태로든 체벌 등의 양육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 영유아의 신체를 심하게 흔들거나 강압적으로 억압하지 않는 것
- 부정적 평가가 내포된 ‘애칭’을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예) 고집쟁이, 게으름뱅이, 나쁜 아이, 욕심쟁이
- 긍정적 표현이더라도 특정 고정관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예) 천상여자, 천상남자, 깍쟁이,
- 욕설, 고함, 협박, 경시 등 부정적인 언어로 자녀와 대화하지 않기
-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기
- 가족생활의 변화(예: 이사 등)에 대하여 설명하기
- 영유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  
(예: 예방접종 등의 의료 처치, 어린이집 선택 등)
- 안전한 주거 공간 제공
- 성적자극을 포함한 매체나 잡지 등에 노출하지 않기
- 연령한계를 넘어선 지나치게 공격적인 장면에 노출하지 않기
- 집 밖의 공원 등에서 안전한 놀이기회 제공
-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활동(음악, 미술, 신체활동 등) 제공
- 가족 간 의사소통에 참여하여 영유아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조성
- 가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
- 혼자 집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

## 다. 영유아 권리에 기반한 영유아와 부모의 상호작용

## 1) 긍정적 훈육

## ① 긍정적 훈육방식

긍정적 훈육은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부모 양육 유형이다. Save the Children(2008)은 부모의 긍정적 훈육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             |
|--------------------|-------------|
| E. 긍정적인 훈육으로 반응하기  |             |
| D. 문제해결하기          |             |
| C. 아이의 생각과 감정 이해하기 |             |
| B1. 따뜻함 제공하기       | B2. 체계 제공하기 |
| A. 장기적인 목표 정하기     |             |

출처 : Save the Children(2008). 긍정적인 훈육

|                                                                                                                                                                                                 |                                                                                                                                                                                                                |
|-------------------------------------------------------------------------------------------------------------------------------------------------------------------------------------------------|----------------------------------------------------------------------------------------------------------------------------------------------------------------------------------------------------------------|
| <b>A. 장기적인 목표 정하기</b><br>부모는 자녀가 당장 성취하기를 바라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
| <b>B1. 따뜻함 제공하기</b><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안정</li> <li>· 무조건적 사랑</li> <li>· 언어적, 신체적 애정</li> <li>· 아동발달 단계 존중</li> <li>· 아동욕구에 대한 민감성</li> <li>· 아동의 감정에 공감</li> </ul> | <b>B2. 체계 제공하기</b><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li> <li>· 명확하게 설정된 기대</li> <li>· 명확하게 설명된 이유</li> <li>· 아이의 성공을 돕기 위한지지</li> <li>· 아이의 독립적 사고 격려</li> <li>· 아이와 함께 논의</li> </ul> |
| <b>C. 아이의 생각과 감정 이해하기</b><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비로소 아이의 행동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음</li> <li>·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할 것임</li> </ul>               |                                                                                                                                                                                                                |
| <b>D. 문제 해결하기</b><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연령의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행동 등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알고 있으면 자녀와의 갈등해결에 도움</li> <li>· 아이들의 행동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의 발달단계 고려</li> </ul>              |                                                                                                                                                                                                                |
| <b>E. 긍정적인 훈육으로 반응하기</b><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많은 연습과 반복이 필요. 실제로 긍정적인 훈육으로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복연습이 매우 중요</li> </ul>                                      |                                                                                                                                                                                                                |

## 2) 양육적인 부모

긍정적 양육유형을 발달시킬 수 있는 양육적인 부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① 적절한 행동모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결점을 지적하고 비평하고 실수를 비판하는 것만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의 행동을 가르치는 첫 단계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들의 잘못된 행동의 대부분은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재연한 경우가 많다.

## ▶ 나는 긍정적인 역할모델인가?

- 자녀들이 내 행동에서 애정, 감정이입, 관대함,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가?
-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서 나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 내가 자녀들에게 읽어 주는 책은 어떤 종류인가?
- 어떻게 아동이 주목하고 반응하게 될 적절한 행동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는가?

## ② 영유아 개별적 요구에 대한 민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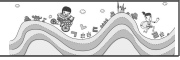
부모는 자녀의 개별적 요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녀들간, 그리고 자녀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성가신 행동을 할 때 부모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다.

## ▶ 부모를 성가시게 하는 행동에 대한 네 가지 질문

- 자녀 행동의 어떤 측면이 나를 성가시게 하는가?
-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가 무심코 그 행동의 본보기를 보여준 적은 없는가?
- 문제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긍정적 행동을 배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 ③ 긍정, 애정, 수용적인 태도

긍정, 애정, 수용은 누군가 자신을 원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보상은 부모의 애정, 수용이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조건적 애정은 단지 아동이 성인을 기쁘게 할 때만 아동에게 주어지는 관심이다. 조건적 애정은 ‘착하게 행동할 때만 너를 사랑할거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보상은 아동이 주어진 시간동안 얼마나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단지 있는 그대로의 아동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도록 해준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비록 가끔 실수도 하지만, 넌 사랑스럽고 괜찮은 아이야’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부모는 자녀를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

▶ 존재에 대한 긍정

- “넌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 “너여서 난 기쁘단다.”
- “네가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

▶ 독립적이 되는 것에 대한 긍정

- “주의를 끌기 위해 속임수-일부러 꾸미고, 아프고, 슬프고, 흥분하고, 두려워하는-를 사용해서는 안 돼.”
- “너 자신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해.”

▶ 사고하는 것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긍정

- “비록 다소의 위험이 뒤따르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어.”
- “네 자신의 행동결과는 네 것이야.”
- “실수는 용납되지만, 책임져야 한단다.”

▶ 개인적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에 대한 긍정

-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 “의견 불일치도 인정된단다.”
- “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렴.”

출처: 조희숙, 공숙자, 김선옥 역(2003). 아동생활지도

#### ④ 인정과 격려

칭찬은 자녀의 동기를 고조시킬 수 있지만 가끔씩 지나친 칭찬은 자녀에게 부담을 준다. 칭찬, 승인, 격려는 다르다. 아동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가 한 일에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말한다. 부모는 자녀가 한 일을 부모가 인정하는 것을 알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격려한다. 이런 부모는 자주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칭찬은 외적인 보상을 얻는데 자녀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인정과 격려는 성취감, 자존감, 동기유발 등 내적인 보상을 준다.

#### ⑤ 영유아기 자녀의 개별적 권리 인정

부모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도 권리를 보호받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권리를 존중해 주고, 공정성 있는 양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양육과정에서 자녀 권리 보호의 예

주환 엄마는 5세 주환이와 3세 회원이 남매를 키우고 있다. 회원인 오빠 주환이를 아주 좋아해서 늘 졸졸 쫓아 다니려고 한다. 주환이는 동생 회원이와 몇 시간동안 잘 놀아 주지만 친구들이 놀러 오면 회원이와 놀지 않으려고 한다. 주환 엄마는 부엌일을 하느라 바빴는데 거실에서 아이들끼리 언쟁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환이와 친구들이 회원이와 함께 놀지는 않고 회원이에게 “회원이는 바보, 우리만 따라다녀.” 하면서 놀리고 있었다. 이때 주환 엄마는 이 상황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생각해 보았다.

- 주환 엄마: 부모로서 주환 엄마는 방해받지 않고 집안일을 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아이들을 돌봐야 할 의무도 있다.
- 주환: 동생의 청을 들어주고 도와줄 의무가 있지만 자기 생활을 주도하며 친구와 놀 권리도 있다.
- 회원: 조롱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오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때로 혼자 노는 것을 배울 의무가 있다.

▶ 권리 존중 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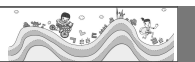
주환 엄마: “주환아, 회원이는 네가 놀렀을 때 상처받았단다. 넌 네 친구와 놀 권리가 있지만 조롱하는 것은 안 돼, 엄마가 부엌일을 마칠 때 까지 앞으로 10분만 더 회원이와 놀아다오. 그 이후에는 너희들끼리 놀 수 있도록 회원이를 엄마가 데려갈게.”

※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유아기 아이들은 자주 부모를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한다. 이럴 때 긍정적인 훈육을 하는 부모는 다음의 지침을 기억하고 자녀에 대한 불필요한 분노를 피해갈 수 있어야 한다.

- 말이나 행동하기 전 먼저 열 까지 세자. 그래도 화가 나면 상황을 피해서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어깨를 내리고 깊게 심호흡한 후 ‘침착하자’, ‘진정해’ 라는 말을 반복한다.
- 등 뒤에 손을 대고 기다린다.
- 산책을 하면서 당시의 상황과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한 후, 부모는 왜 화가 났는지 아이의 입장을 존중하며 설명한다.
-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 Save the Children(2008). 긍정적인 훈육



### 3) 영유아 권리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 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은 아동권리침해와 보장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은 꼭 가족 구성원이 다른 멤버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다. 침묵, 몸짓, 얼굴 표정, 말투, 자세도 메시지가 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하지마.’라는 표현을 말투나 얼굴 표정으로 별 확신 없이 할 수도 있다. 이때 자녀는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 받는다. 말로 자녀는 행동을 멈추라는 요구를 받지만, 별다른 감정이 담기지 않은 어머니의 표현은 자녀가 행동을 멈추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다른 예로, 아버지가 영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을 제재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하면 어머니는 ‘제가 그 아이는 통제가 안 된다고 말했죠’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유아기 자녀의 말썽부리는 태도가 더 심각해질 확률이 높다.

가족의 의사소통 대부분은 가족 규칙과도 연관이 있다. 가족 규칙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개발해나가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유형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행동 수칙이나 추정으로 가족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속상할 때 아버지에게로 가라 아버지가 더 잘 이해하신다’로 세워질 수도 있다. 규칙들은 기능적이나 역기능적일 수 있지만, 상관없이 가족의 의사소통을 좌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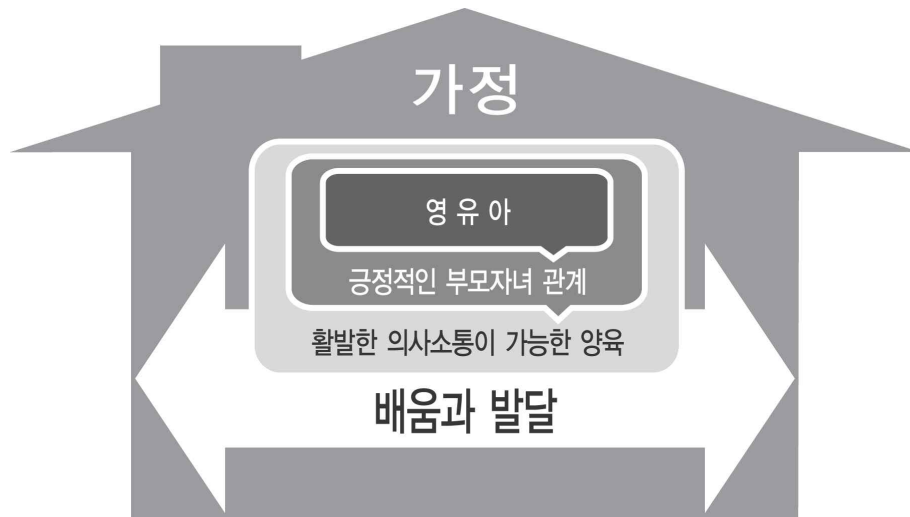
특히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규칙은 그 가정이 속해있는 문화권에 따라 뚜렷하고 개방되어 있으며, 일관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주로 미완성된 의사소통을 한다. 그것은 바로, 받는 사람이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을 예측할 거라는 착각 하에 보내지는 불완전한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의사소통을 했음에도 자신이 전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랄 때, 좌절감, 억울함, 화가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 ② 영유아 자기표현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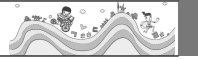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는 유아의 훈련과 사회화를 강조하면서 유아를 이해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 및 선택의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 이해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조 ‘의사표현의 권리’는 영유아의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부모는 영유아가 자신들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감정, 생각과 희망을 전달하고 선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가정에서부터 실행·정착될 것을 제안하였다(황옥경, 2011).

영유아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가정환경이 요구된다. 부모는 수시로 자녀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등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인가 평가해야 한다. 자녀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언어 환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부모는 말하기를 배우기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영유아가 자신들의 감정, 생각, 희망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 영유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일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모나 형제가 언제나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영유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언제나 세심하게 들어준다.
- 부모의 생각보다 영유아가 풍부한 자기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한다.



## 2 ●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방식



### 가. 애착발달과 아동학대

대부분의 경우 부모에 의한 학대는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감 즉 애착발달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자녀의 기질, 성별, 장애유무, 심지어 임신기 동안 기대했던 아동의 외모와 출생시 외모의 차이(서구의 경우 머리카락과 눈 색깔 등) 등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자녀간 애착부재는 아동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럴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불안정한 양육 등의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자해행동, 타인에 대한 잔혹행위, 충동조절장애, 습관적 거짓말,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결국 이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바의 행동을 수행할 수 없어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청소년이나 성인으로 자란다.

### 나. 부모의 일상적 양육행동과 아동학대

가정 내에서 부모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녀의 요구와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부모 자신이 양육 받은 경험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부모들은 자녀들의 올바른 습관형성을 위해서 체벌을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체벌은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로 아이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는 것을 부모들은 기억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가 연령에 따라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들이 간혹 문제 행동으로 이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들이 연령에 따라 보이는 전형적인 영유아의 행동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부모가 아동학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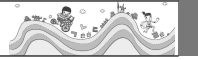
연령에 따라 흔히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특성 몇 가지 예를 들고, 이 같은 행동 이면에 영유아의 어떤 요구가 있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특성과 행동 이면의 욕구

| 연령 | 행동특성                                                                                                                                        | 행동 이면의 욕구                                                                                                                      |
|----|---------------------------------------------------------------------------------------------------------------------------------------------|--------------------------------------------------------------------------------------------------------------------------------|
| 0세 | 자주 울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표현의 중요 수단</li> <li>- 우는 이유를 찾아본다(배고픔, 피곤함, 기저귀, 몸이 불편함, 너무 더움, 너무 추움 등)</li> </ul>  |
| 1세 | 20개월 이후 대소변 가리기 실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 심리적 퇴행 등이 원인</li> <li>- 이 시기 영아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li> </ul>                       |
| 2세 |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고집부리기(유모차에 타지 않고 밀어보려고 함, 카트를 밀려고 함,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고 때를 부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발달, 인지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싶어 함</li> </ul>                                 |
| 3세 | 발로차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공격적인 의도로 발로차기 보단, 유아가 누군가 발로차기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li> </ul> |
| 4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을 돌아다님(예: 부모가 쇼핑할 때 자기에겐 관심 있는 대상이 눈에 들어오면 전후사정 고려하지 않고 그 것을 향해 돌진)</li> <li>- 욕심 부리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을 탐색하고 싶어 함</li> <li>- 자기 소유물의 의미를 알게 됨</li> </ul>                                  |
| 5세 | 거짓말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가 목적인 바를 이루고 싶거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싶을 때, 관심 등을 끌고 싶은 경우에 거짓말을 함</li> </ul>        |

## 다. 미숙한 양육행동과 아동학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된다. 부모들은 자신이 양육 받은 경험이나 가족과 친구들의 양육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배운다.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부모는 자녀를 커다란 문제없이 양육하지만 잘못된 모델링을 통해 부모가 자녀양육방식을 학습하였거나 부모의 성격이 급해 오랜 시간에 걸친 아동의 발달과 행동변화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양육 받은 방식이 아동학대에 가까운 것이었거나 원하지 않은 자녀의 출산, 부모의 나쁜 건강상태, 가정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부모는 자녀를 학대할 수 있다.



### 3 부모와 영유아 상호작용시 아동권리 감수성 향상을 위한 부모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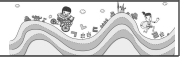
#### 가. 가정 내 아동권리 침해 사례와 긍정적인 부모역할 방안

가정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동권리침해 사례와 이의 대처방안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1) 연령: 만 0세~ 만 1세

| 부모와 영아 상호작용 상황 |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 부모역할                                                                                                                                                                                                                                                          |
|----------------|--------------------------------------------------------------------------------------------------------------------------------------------------|---------------------------------------------------------------------------------------------------------------------------------------------------------------------------------------------------------------------------------------------------------------|
| 수유하기           | 부모가 정해놓은 시간에 수유하면서<br>- “우리 아가 배고왔지, 배고픈 것 잘 참았네, 3시간마다 한 번씩 수유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                                                                    | 수유는 가능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영아의 신체 상황, 일상생활 일정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필요하다.                                                                                                                                                                                               |
| 기저귀 갈기         | 부모가 영아의 기저귀를 갈면서<br>- “아이고, 우리 집 오줌싸개 옆집 00처럼 기저귀 빨리 떼어야지.”                                                                                      | 기저귀 갈이는 부모와 영아가 친밀하게 상호작용하고 놀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다. 기저귀를 갈면서 ‘우리 아가 나날이 부쩍부쩍 잘 크고 있구나. 자 다리 운동 해 볼까. 그래 기저귀를 잠시라도 떼어 놓으니 기분이 좋지!’ 등과 같이 부모 자녀간 긍정적 상호작용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 놀이시간           | 형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서로 다룰 때<br>- “너희들은 틈만 나면 싸우는구나. 너 혼자 가지고 놀라고 사 준 것은 아니지. 서로 양보해 가면서 잘 놀아야지. 엄마가 너희들 필요한대로 모든 것을 다 사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 17개월경부터 영아는 ‘내거야’ 라는 말을 자주할 수 있다. 자기 소유물에 대한 욕구와 집착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좋아하는 물건을 나누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부모는 형과 동생 각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예: ‘그래 그건 네 장난감이지, 형이 자꾸 빼앗아 가서 네 놀이를 방해하는구나/ 형한테 ‘동생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싶으면 동생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어떻게 물건을 가지고 함께 놀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다. |
| 놀이시간           | 장난감을 온통 어지럽게 늘어놓은 영아를 봤을 때                                                                                                                       | 장난감을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인성을 비난·                                                                                                                                                                                                                |

| 부모와 영아 상호작용 상황 |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 부모역할                                                                                                                                                               |
|----------------|---------------------------------------------------------------------------------------------------------------------------------------------------------------------------------------------------------|--------------------------------------------------------------------------------------------------------------------------------------------------------------------|
|                | <p>– “야, 너 이렇게 어질러놓으면 어떡해. 엄마 청소 또 해야 하잖아. 네 물건은 네가 정리해야 한다고 엄마가 몇번을 말했니? 그렇게 정리정돈 잘 하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 못돼.”</p>                                                                                             | <p>비교하기, 부모의 피곤함을 아이에게 전이하여 화를 내서는 안 된다.<br/>이 경우 부모는 ‘장난감 정리하는 것을 잊었구나. 엄마가 도와줄 테니 장난감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자’며 아이가 정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노래 부르기)을 이용하여 장난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p> |
| 낮잠             | <p>자고 일어나 이유 없이 우는 영아에게<br/>– “아 실컷 자고 나서 울기부터 하는구나. 네가 울면 엄마가 화가 나~ 울음 똑 그치자. 어서~ 계속 울면 경찰아저씨가 와서 잡아간다.”</p>                                                                                           | <p>낮잠을 자고 난 영아는 눈을 떴을 때 낮선 상황을 느끼거나 기저귀 등이 불편하여 울기도 한다. 부모는 영아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세밀하게 관찰하여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찾는다.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p>                                   |
| 외출             | <p>낮선 장소에서 아이가 외투를 벗지 않고 놀이하겠다고 할 때<br/>– “어서 외투 벗자, 다른 애들은 다 코트 벗었잖아, 너만 벗고 있지 않으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p>                                                                                                    | <p>이 시기 영아는 낮선 환경에 의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부모는 영아에게 이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아이가 안심하여 외투를 벗을 때 까지 기다린다.</p>                                                                  |
| 아이를 분리할 때      | <p>부모가 급한 불일이 있어 영아를 친척집에 맡기고 나오려 하자, 영아가 막무가내로 떼를 쓸 때<br/>– ‘엄마 금방 올 거야. 걱정 마. 아이 착하지 고모가 잘 돌봐 주실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여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불안해한다. 이 때 엄마가 ‘엄마 안 간다.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마’라고 하고는 영아가 보지 않을 때 몰래 나온다.</p> | <p>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는 안 된다. 영아가 강하게 떼를 부려도 엄마가 곧 돌아올 테니 안심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며 믿음을 준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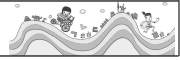
## 2) 연령: 만 2세

| 부모와 영아 상호작용 상황 |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 부모역할                                                                                                                                                                                             |
|----------------|----------------------------------------------------------------------------------------------------------------------------------------------------------------|--------------------------------------------------------------------------------------------------------------------------------------------------------------------------------------------------|
| 화장실 가기         | 영아가 옷에 실수를 했을 때<br>- “그러니 음료수 조금만 마시지. 오줌 싸면 옆집에서 소금 받아와!”                                                                                                     | 부모는 영아의 대소변 가리기 훈련시 위협이나 빈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영아의 음식 및 음료 수 섭취량을 관찰하여 미리 화장실에 가야 할 것을 알려준다. 만약, 실수를 하더라도 편잔을 주거나 나무라지 않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실수하지 않았을 때는 그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해준다.                       |
| 씻기             | 아이가 씻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울 때<br>- ‘씻지 않으면 피부병 등 온갖 병이 네 몸에 퍼지게 된다. 너 정말 아프고 싶어?’ 등과 같이 위협적으로 말하는 경우                                                              | 영아가 졸리거나 피곤할 때, 놀이를 중단하고 싶지 않을 때 등의 상황에서 목욕하기 싫을 수 있다. 평소에 목욕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여 하루 일과를 구성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놀이가 끝난 후에는 목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 준다. 더불어 부모는 정기적으로 올바르게 씻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
|                | 씻는 동안 욕실에서 비누와 물을 가지고 장난하며 오래 있을 때<br>- “물 좀 아껴서 사용해! 그만하지 못하겠니?”                                                                                              | 영아는 씻을 때 비누를 사용하며 재미나 흥미를 느낀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씻는 동안 비누나 물을 이용한 놀이를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 외출             | 엄마는 00와 길을 걷는다. 멀리 떨어져 걸어오는 00을 보며<br>- “00아 어서와, 이제 우린 집에 가야해.”<br>00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돌아다닌다. 엄마는 인내심을 잃었다.<br>- “00야 당장 이리와!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br>00는 엄마를 무시한다. | 이 시기 영아는 주변 탐색을 즐기며 혼자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한다. 특히 ‘아니야’, ‘싫어’라는 말을 갓 배워 자주 사용한다. 부모는 영아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잘못된 자아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고집쟁이’와 같이 부정적 언어와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집에 가야할 시간임을 단호하고 간결하게, 따뜻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얘기한다. |
| 놀이시간           | 놀이하던 중 아이가 친구의 코를 이빨로 물었다. 이때 엄마가 나서서 영아에게 얘기한다.<br>- “어~ 친구를 또 물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가 몇 번이나                                                                      | 걸음마기 아이는 이가 나는 과정에서 잇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깨무는 행동을 많이 한다. 그렇다고 무는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 일단 친구들과 놀이할 때는 부모 등 어른이 옆에서 아이의 행동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누군                                                                      |

| 부모와 영아 상호작용 상황 |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 부모역할                                                                                                                                              |
|----------------|------------------------------------------------------------------------------------------------------------------------------------------------------------------|---------------------------------------------------------------------------------------------------------------------------------------------------|
|                | 말했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들어 어떻게 하니? 네가 또 그러면 친구들이 널 싫어 할 거다.”                                                                                                           | 가를 무는 행동은 절대 허용할 수 없음을 설명해 준다.                                                                                                                    |
| 옷 입기           | 혼자서 옷을 입겠다는 영아를 놔두었는데,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했을 때<br>- “자, 네가 입은 옷차림을 좀 봐. 넌 아직 혼자 할 줄 모른다고 했잖아. 엄마가 다시 옷 입혀주는 동안 얹전히 가만히 좀 있어.”<br>영아는 엄마가 자신이 입은 옷매무새를 만지지 못하도록 버둥댄다. | 이 시기 영아는 옷 입기, 식사하기, 신발 신기 등 많은 행동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한다. 영아가 옷 입기 등을 혼자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때때로 옷을 다시 입혀 주어 유아가 좌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한다. 가능한 영아의 행동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 |

### 3) 연령: 만 3세

| 부모와 유아 상호작용 상황 |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 부모역할                                                                                                                                                                             |
|----------------|----------------------------------------------------------------------------------------------------|----------------------------------------------------------------------------------------------------------------------------------------------------------------------------------|
| 놀이시간           | 한 가지 장난감을 오래 가지고 놀이 할 때<br>- “다른 장난감 잔뜩 놔두고 넌 왜 00만 가지고 노니? 가지고 놀지 않을 거면서 왜 00을 사달라고 했니? 돈만 아깝잖아.” | 유아들은 다양한 특징에 관심을 보이고, 관심사도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 좋고 싫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모는 이런 유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br>- “넌 00를 참 좋아하는구나.”<br>- “네가 놀이 할 수 있는 00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
| 놀이시간           |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할 때<br>- “넌 욕심도 많구나. 집에 네 장난감도 많이 있잖아.”<br>- “엄마가 사줄게, 놓고 가자.”                  | 이 시기의 유아가 친구와 물건을 공유하기는 어렵다. 유아가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할 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유아의 의견을 묻는다.<br>- 지키지 못할 허황된 약속이나 부정적인 인성을 표현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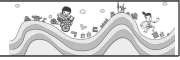


| 부모와 유아 상호작용 상황 |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 부모역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것은 내가 가져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li> </ul>                                                                                                                                                     |
| 낮잠             | <p>낮잠을 잔 유아가 일어나 칭얼거릴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꾸러기야! 그만 자야지.”</li> <li>- “오늘 종일 놀기만 했구나. 이제 책 좀 읽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유아에게 부정적 자아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잘못된 애칭이나 별명을 붙여 말하지 않는다.</li> <li>- 모든 놀이는 학습의 일부이다. 부모는 책읽기가 놀이의 일부로 학습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다.</li> </ul>                                                   |
| 잠자리 들기         | <p>유아가 투정부리며 늦게까지 자지 않고, 놀이를 하려고 할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자면 00가 잡아간다.”</li> <li>- “어서 자자. 우리 다 눈감고 자는데.”</li> <li>- “늦게 일어나면 내일 어린이집 안 데려다 준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가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 놓는다. 유아는 그에 따라 일상생활을 계획해야 한다. 유아가 잠들어야 하는 늦은 시각에 슈퍼에 데리고 가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li> <li>- 부모는 유아가 쉽게 잠들 수 있도록 집안의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고 TV 등 소음이 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한다.</li> </ul> |
| 실외놀이·외출        | <p>유모차를 유아가 밀겠다고 할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돼, 쪼그만 게 어떻게 유모차를 밀어!”</li> </ul>                                                                                | <p>유아들은 만 2세가 지나면 혼자 무엇이든 해 보고 싶어 한다. 유모차를 혼자서 밀고, 타지 않고 걷는다며 떼를 쓰기도 한다. 부모는 유아의 이런 발달특징을 충분히 이해한다.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유모차를 밀어보는 경험을 해 볼 수도 있다.</p>                                                                                            |

#### 4) 연령: 만 4세

| 부모와 유아 상호작용 상황 |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 부모역할                                                                                                                                                                                 |
|----------------|-------------------------------------------------------------------------------------------------------------------------------|--------------------------------------------------------------------------------------------------------------------------------------------------------------------------------------|
| 일어나기           | <p>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유아가 떼를 쓰며 일어나지 않을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가 게으름뱅이구나”, “아침부터 울면 00가 잡아간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정서를 충분히 인정해 주고 하루 일과가 얼마나 즐거울지에 이야기를 해 준다.</li> <li>- 유아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별명’이나 ‘애칭’을 붙여 말하지 않는다.<br/>예) 게으름뱅이, 고집쟁이 등</li> </ul> |
| 식사 시간          | <p>유아가 돌아다니거나 놀이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는 바르게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유아에게 가족들이 식사를 다 할 때 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li> </ul>                                                          |

| 부모와 유아 상호작용 상황 |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 부모역할                                                                                                                                                                                                                                                                                                                                                                        |
|----------------|-------------------------------------------------------------------------------------------------------------------------------------------------------------------------------------------------------------------------------|-----------------------------------------------------------------------------------------------------------------------------------------------------------------------------------------------------------------------------------------------------------------------------------------------------------------------------------------------------------------------------|
|                | <p>골고루 음식을 먹지 않는 유아에게 건강을 해친다며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위협해서 설명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 이렇게 안 먹으면 키 안 크다.”</li> <li>- “너 이렇게 많이 먹으면 똥보 된다.”</li> </ul>                                                         | <p>알려 준다. 유아가 식사 자리를 떠나는 것은 특별한 경우(아프거나 위험할 때 등)에 허용하고, 다른 가족이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가지 반찬을 먹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 주고, 각각의 음식 맛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하면서 식사한다.</li> <li>- 부모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 그렇지만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을 경우 유아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부모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li> <li>- 무엇을 먹고 싶은지, 먹을 수 있는지 유아에게 물어보고 메뉴를 구성한다.</li> </ul> |
| 외출 준비          | <p>공원에 나가 놀이하려고 할 때, 아이를 조심시키기 위해 하는 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 공원에서 놀이할 때 조심해야 해. 그네나 미끄럼틀 다 위험하니 규칙에 따라 놀이해. 안 그러면 엄마 다음부터 너랑 공원에 나오지 않을 거야.”</li> <li>- “너 혼자 막 놀면 엄마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릴 거야.”</li> </ul> | <p>유아는 자신의 신체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하면 놀이할 수 있다. 부모는 안전을 위해 유아를 늘 살펴봐야 한다.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유아는 욕구가 앞서 약속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유아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놀이할 때는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게 되면 네가 많이 아파. 엄마는 그게 걱정된다’며 다시 한 번 놀이규칙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p>                                                                                                                                                           |
|                | <p>부모가 외출 시간에 늦을까봐 서두르는데, 유아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준비하지 않을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서 옷 입어! 아직도 엄마가 입혀줘야 해? OO는 네 나이 때 혼자 옷 다 입었어.”</li> </ul>                                                                 | <p>양육 과정에서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유아를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p>                                                                                                                                                                                                                                                                                                                         |



5) 연령: 만 5세

| 부모와 유아 상호작용 상황 |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 부모역할                                                                                                                                                                                                          |
|----------------|-----------------------------------------------------------------------------------------------------------------------------------------------------------------------------------------------|---------------------------------------------------------------------------------------------------------------------------------------------------------------------------------------------------------------|
| 일어나기           | 유아가 잠에서 깨지 못하자, 부모가 이불을 제치고 유아를 안아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는 행위<br>- “일어나지 않으면 엄마, 아빠 다 출근할 테니, 너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                                                                                          | 유아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 부모는 계속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
| 식사 시간          | 식사 시간에 궁금한 질문이나 생각을 말하고 싶어 하는 유아에게<br>- “말하지 말고 빨리 먹어”<br>- “늦게 먹으면 00 안 준다.”<br>- “궁금한 것도 많네, 너 꼭 밥 먹을 때 말이 많더라.”(부정적인 어조)                                                                   | 이 시기 유아는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즉시 답을 알고 싶어 한다. 부모는 유아의 이 같은 발달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식사시간이 가족간의 즐거운 대화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br>- 식사 시간에 음식과 연관된 지역, 문화 등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부모는 가족간의 대화가 충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식사 시간을 충분하게 계획할 수 있다. |
| 실외놀이           | 놀이터에서 기어오는 애벌레를 보고 무서워 크게 비명을 지른다.<br>- “소리 지르지 마, 하나도 안 무서워, 애벌레잖아. 이게 나비가 되는 건데 뭐.”<br>- 유아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면서 “어디 만져봐, 팬찮잖아. 우리 00 겁쟁이구나.”                                                      | 유아들은 경험하지 않은 동물에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 부모는 유아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여기 벌레가 널 다치게 할까봐 무섭구나. 아~ 그래 엄마도 그런 적이 있단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애벌레가 널 하나도 해칠 수 없어.”라며 불안감을 달래 준다.                                                                  |
| 목욕시간           | 욕조에 거품을 만들어 씻기 좋아하는 유아가 화장실에서 나올 줄 모를 때<br>- “목욕을 그렇게 오래하면 어떡하니. 엄마가 너 보살피느라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하겠구나.”<br>- “목욕은 놀이시간이 아니다. 얼른 씻고 나가야 하니 서두르자.”<br>- “목욕하는 것만큼 다른 일도 열심히 잘해 보자. 책도 이렇게 오래 읽었으면 좋겠구나.” | 유아들은 씻는 동안 물이나 비누거품을 이용해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부모는 유아가 욕조에 오래 있어도 조금해 할 필요 없다. 목욕 전 유아와 목욕 시간을 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한다.                                                                                                      |